

블랑팡 –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  
Ref. 5015-12B30-98B & 5015-12B40-98B  
Ref. 5050-12B30-98B

## 아이코닉한 피프티 패덤즈 오토매틱 & 피프티 패덤즈 그랜드 데이트를 티타늄 브레이슬릿 모델로 만나다

65 여년 전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를 세상에 선보인 이래 블랑팡은 최첨단 소재와 워치메이킹 기술을 결합하며 지금까지 혁신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블랑팡은 티타늄 브레이슬릿이 매치된 아이코닉 피프티 패덤즈의 세 가지 버전을 갖추게 되었다. 스포티하면서 시크한 매력을 지닌 이 신제품은 탁월한 성능과 가벼운 무게가 특징이다.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로서 1953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블랑팡의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은 풍성한 유산을 자랑한다. 최첨단 기술과 미학적 특징을 지닌 피프티 패덤즈는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블랙 배경 위 커다란 야광 아워마커와 바늘, 견고함, 방수 성능, 안전한 로테이팅 베젤 모두 워치메이킹 업계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다이빙 워치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동시에 블랑팡은 일찍부터 시계 제작에 있어 혁신적인 소재를 사용해왔다. 실제로 블랑팡은 미 해군 소해정 팀을 위한 특별한 MIL-SPEC II 모델을 제작한 1960 년대 초반 이미 티타늄 소재를 채택한 바 있다. 2015 년 블랑팡이 경매를 통해 입수한 “미 해군(US Navy)” 타임피스가 그 증거다. 반자성 구리, 아연, 니켈 합금인 니켈 실버 소재 케이스 뒷면을 티타늄으로 제작했는데, 이는 높은 압력에서도 견디는 티타늄의 탁월한 견고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항공 산업에서 주로 사용된 티타늄은 워치메이킹 업계에서는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소재를 시계 제작에 처음으로 활용한 매뉴팩처가 아마 블랑팡이었을 것이다.

블랑팡의 머스트 해브 타임피스인 피프티 패덤즈 오토매틱(Fifty Fathoms Automatic)과 피프티 패덤즈 그랜드 데이트(Fifty Fathoms Grand Date)는 브랜드의 역사, 그리고 혁신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일 캔버스, 나토 스트랩과 체결되어 선보여졌던 이 타임피스들은 현저히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하는 새로운 티타늄 브레이슬릿 버전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이 브레이슬릿은 정교한 조립과 피니싱 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일일이 손으로 새틴 브러싱 처리한 링크를 트랜스버스(transverse) 핀으로 연결해 만들어낸 유연함과 부드러움이 손목에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특히 받은 시스템을 통해 (보통 측면에 있는) 스크루를 링크 뒤로 옮겨 브레이슬릿 가장자리의 매끈한 느낌과 텍스처를 그대로 살렸다. 덕분에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꿇김없이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가독성을 자랑하는 슈퍼-루미노바® 아워마커와 바늘, 스크래치 방지 사파이어 인서트를 갖춘 단방향 로테이팅 베젤 등

다이빙 장비로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시계 다이얼의 상징적인 모습을 브레이슬릿이 더욱 부각시킨다.

45mm 사이즈에 30 bar(약 300m) 방수 가능한 티타늄 케이스를 탑재한 피프티 패덤즈 오토매틱과 그랜드 데이트 모델은 각각 매뉴팩처 무브먼트 2007년 처음 선보여진 후 피프티 패덤즈 칼리버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1315 무브먼트, 또는 6918B에 의해 구동된다. 실리콘 밸런스-스프링을 사용한 덕분에 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칼리버들은 세 개의 짝을 지은 배럴 덕분에 넉넉한 5일 파워리저브를 제공한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정교한 피니싱도 엿볼 수 있다.

피프티 패덤즈 오토매틱은 블랙 혹은 블루 선버스트 다이얼, 피프티 패덤즈 그랜드 데이트는 블랙 다이얼로 변함없이 만날 수 있다. 가볍고 견고한 이 모델들은 가벼우면서 넉넉한 사이즈의 타임피스를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스포티하고 우아한 시계 애호가들에게 어필할 것이다.